

25. 비구의 장

Bhikkhuvaggo

Monk

360. 눈으로 절제함은 훌륭하고
귀로 절제함은 훌륭하다.
코로 절제함은 훌륭하고
혀로 절제함은 훌륭하다.

*Cakkhunā saṃvaro sādhu sādhu sotena saṃvaro
Ghānena saṃvaro sādhu sādhu jivhāya saṃvaro.*

Good is restraint over the eye;
good is restraint over the ear;
good is restraint over the nose;
good is restraint over the tongue.

361. 몸으로 절제함은 훌륭하고
말로 절제함은 훌륭하다.
생각으로 절제함은 훌륭하고
모든 곳에서 절제함은 훌륭하다.
모든 곳에서 절제하는 비구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다.

*Kāyena saṃvaro sādhu sādhu vācāya saṃvaro
Manasā saṃvaro sādhu sādhu sabbattha saṃvaro
Sabbattha saṃvuto bhikkhu sabbadukkhā pamuccati.*

Good is restraint in the body;
good is restraint in speech;
good is restraint in thought.
Restraint everywhere is good.
The monk restrained in every way
is freed from all suffering.

* 비구는 남성 출가자, 비구니는 여성 출가자를 뜻한다.

362. 손을 절제하고 발을 절제하며
말을 절제한 최상의 절제로
내면의 기쁨과 선정을 얻어 행복한 한 사람,
그를 비구라 부른다.

*Hattha saññato pāda saññato vācā saññato saññatuttamo
Ajjhatarato samāhito eko santusito tam āhu bhikkhuṃ.*

He who has control over his hands, feet and tongue;
who is fully controlled, delights in inward development,
is absorbed in meditation, keeps to himself and is contented—
him do people call a monk.

363. 입을 절제하며 비구는
교만함이 없이 진언을 독송하여
법과 뜻을 밝게 하니
그의 말이 감미롭다.

*Yo mukha saññato bhikkhu mantabhāṇī anuddhato
Atthaṃ dhammañ ca dīpeti madhuraṃ tassa bhāsitaṃ.*

That monk who has control over his tongue,
is moderate in speech, unassuming
and who explains the Teaching in both letter and spirit—
whatever he says is pleasing.

* 진언으로 표시한 manta(mantra)는 경전 또는 가르침이라 번역을 하기도 한다. 암송을 위한 짧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말에 가깝다 한다.

364. 법을 기뻐하고 법에 전념하여
법을 깊이 사유하고
법을 기억하는 비구는
진실한 법에서 퇴보하지 않는다.

*Dhammārāmo dhammarato dhammaṃ anuvicintayaṃ
Dhammaṃ anussaraṃ bhikkhu saddhammā na parihāyati.*

The monk who abides in the Dhamma,
delights in the Dhamma, meditates on the Dhamma,
and bears the Dhamma well in mind—
he does not fall away from the sublime Dhamma.

365. 자신이 얻은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남의 것을 부러워 말라.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비구는
선정을 얻지 못한다.

*Salābhaṃ nātimaññeyya nāññesaṃ pihayaṃ care
Aññesaṃ pihayaṃ bhikkhu samādhiṃ nādhigacchati.*

One should not despise what one has received,
nor envy the gains of others.
The monk who envies the gains of others
does not attain to meditative absorption.

366. 비구가 적게 얻더라도

자신이 얻은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

신들은 진실로 그 청정한 삶과

부지런함을 칭송한다.

*Appalābho pi ce bhikkhu salābhaṃ nātimaññati
Taṃ ve devā pasamsanti suddhājīviṃ atanditaṃ.*

A monk who does not despise

what he has received, even though it be little,

who is pure in livelihood and unremitting in effort—

him even the gods praise.

367. 마음과 물질에 대하여
그에게는 소중한 것이 없다.
거짓에 슬퍼하지 않는 그는
진실로 비구라 불린다.

*Sabbaso nāmarūpasmim̐ yassa natthi mamāyitaṃ
Asatā ca na socati sa ve bhikkhū ti vuccati.*

He who has no attachment
whatsoever for the mind and body,
who does not grieve for what he has not—
he is truly called a monk.

368. 자비에 머무르는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조건으로 형성된 것이 고요해진
평화로운 곳의 행복을 얻는다.

*Mettāvihārī yo bhikkhu pasanno buddhasāsane
Adhigacche padaṃ santaṃ saṅkhārūpasamaṃ sukhaṃ.*

The monk who abides in universal love
and is deeply devoted to the Teaching of the Buddha
attains the peace of Nibbana,
the bliss of the cessation of all conditioned things.

369. 비구여, 배를 비워라!

그대의 빈 배는 빠르게 닿을 것이니

욕망과 미움을 끊으면

이로써 그대는 열반에 닿을 것이다.

*Siñca bhikkhu imaṃ nāvaṃ sittā te lahumessati
Chetvā rāgañ ca dosañ ca tato nibbānamehisi.*

Empty this boat, O monk! Emptied,

it will sail lightly.

Rid of lust and hatred,

you shall reach Nibbana.

370. 다섯 가지를 끊어 다섯 가지를 버리고
더하여 다섯 가지를 닦으라.
다섯 가지 집착을 뛰어넘은 비구는
홍수를 건너간 이라 불린다.

Pañca chinde pañca jahe pañca cattari bhāvaye
Pañca saṅgātigo bhikkhu oghatiṇṇo ti vuccati.

Cut off the five, abandon the five,
and cultivate the five.

The monk who has overcome the five bonds
is called one who has crossed the flood.

* 끊어야 할 다섯가지 1) 나라는 견해, 2) 의심, 3) 계와 의식에 대한 집착, 4) 감각적 욕망, 5) 미움 / * 버려야 할 다섯가지 1) 색계에 대한 욕망, 2) 무색계에 대한 욕망, 3) 자만, 4) 도거, 5) 무지 / * 닦아야 할 다섯가지 1) 믿음, 2) 깨어바라봄, 3) 노력, 4) 집중, 5) 지혜 / * 다섯가지 집착 1) 욕망, 2) 미움, 3) 어리석음, 4) 자만, 5) 잘못된 견해.

371. 비구여, 나태하지 말고 명상하라.
네 마음이 욕망하는 성질에 두지 말라.
나태하여 뜨거운 쇠구슬을 삼키지 말고
불에 타며 이것이 고통이라며 울지 말라.

*Jhāya bhikkhu mā pamādo mā te kāmaguṇe bhamassu cittaṃ
Mā lohagaḷaṃ gilī pamatto mā kandi dukkham idan' ti ḍayhamāno.*

Meditate, O monk! Do not be heedless.
Let not your mind whirl on sensual pleasures.
Heedless, do not swallow a red-hot iron ball,
lest you cry when burning, “O this is painful!”

372. 지혜가 없는 자에게 마음의 집중이 없고
명상하지 않는 자에게 지혜는 없다.
그 마음 가운데 집중과 지혜가 있는 이는
진실로 열반 가까이에 있다.

*Natthi jhānaṃ apanñassa paññā natthi ajhāyato
Yamhi jhānañca paññā ca sa ve nibbānasantike.*

There is no meditative concentration for him
who lacks insight, and no insight for him
who lacks meditative concentration.
He in whom are found both meditative concentration
and insight, indeed, is close to Nibbana.

373. 빈 집에 들어가
마음이 고요해진 비구에게
바르게 법을 보고 관찰함으로
인간을 초월한 기쁨이 있다.

*Suññāgāraṃ paviṭṭhassa santacittassa bhikkhuno
Amānusi rati hoti sammā dhammaṃ vipassato.*

The monk who has retired to a solitary abode
and calmed his mind, who comprehends
the Dhamma with insight, in him
there arises a delight that transcends all human delights.

* 경전에서 부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빈집을 찾아가 명상에 전념하라 당부하십니다.

374. 언제든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철저히 알고
희열과 환희를 얻으며
바로 아는 이들이게 이것이 불사이다.

*Yato yato sammāsati khandhānaṃ udayabbayaṃ
Labhatī pītipāmojjaṃ amataṃ taṃ vijānataṃ.*

Whenever he sees with insight
the rise and fall of the aggregates,
he is full of joy and happiness.
To the discerning one this reflects the Deathless.

* 오온은 무더기들(khandhā)을 번역한 말이다. 다섯가지 무더기를 뜻하는 오온은 각각 색(물질, 수(느낌), 상(지각), 행(정신작용), 식(마음)이다. 이와 같은 인간 존재의 분석적 설명을 통해서 부처님께서서는 영원한 것이 없는 존재의 끊임없는 변화 가운데 어디서 집착과 고통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신다.

375. 여기 지혜로운 비구를 위하여
바로 이것이 그 시작이니,
감각을 보호하고 만족하며
계율 가운데 절제하고
청정한 삶의 착하고
부지런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라.

*Tatrāyam ādi bhavati idha paññassa bhikkhuno
Indriyagutti santuṭṭhi pātimokkhe ca saṃvaro
Mitte bhajassu kalyāṇe suddhājīve atandite*

Control of the senses, contentment,
restraint according to the code of monastic discipline—
these form the basis of holy life here for the wise monk.

376. 친절히 행동하고
선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로부터 많은 기쁨이 있고
괴로움이 끝날 것이다.

*Paṭisanthāravutt' assa ācāraḥaḥalo siyā
Tato pāmojjabahulo dukkhassantaṃ karissati.*

Let him associate with friends who are noble,
energetic, and pure in life,
let him be cordial and refined in conduct.
Thus, full of joy, he will make an end of suffering.

377. 자스민이

시든 꽃을 떨구듯

비구들이여 이처럼

탐욕과 미움을 떨쳐버려야 한다.

*Vassikā viya pupphāni maddavāni pamuñcati
Evaṃ rāgañca dosañca vipparamuñcetha bhikkhavo.*

Just as the jasmine creeper
sheds its withered flowers,
even so, O monks,
should you totally shed lust and hatred!

378. 고요한 몸과 고요한 말과
고요한 마음으로 잘 집중하여
세속의 이익을 버린 비구는
평온한 이라 불린다.

*Santakāyo santavāco santavā susamāhito
Vantalokāmisso bhikkhu upasanto ti vuccati.*

The monk who is calm in body,
calm in speech, calm in thought,
well-composed and who has spewn out worldliness—
he, truly, is called serene.

379.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고
스스로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
깨어 바라보며 자신을 보호하는 비구는
행복에 머물 것이다.

*Attanā coday' attānaṃ paṭimāse attam attanā
So attagutto satimā sukhaṃ bhikkhu vihāhisi.*

By oneself one must censure oneself
and scrutinize oneself.
The self-guarded and mindful monk
will always live in happiness.

380. 내가 진정 나의 보호자이고
내가 진정 나의 의지할 곳이다.
그러므로 상인이 좋은 말을 다스리듯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Attā hi attano nātho attā hi attano gati
Tasmā saññāmay' attānaṃ assaṃ bhadraṃ va vāṇijo.*

One is one's own protector,
one is one's own refuge.
Therefore, one should control oneself,
even as a trader controls a noble steed.

381.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큰 기쁨의 비구는
조건으로 형성된 것이 고요해진
평화로운 곳의 행복을 얻는다.

*Pāmojjabahulo bhikkhu pasanno buddhasāsane
Adhigacche padaṃ santaṃ saṅkhārūpasamaṃ sukhaṃ.*

Full of joy, full of faith in the Teaching of the Buddha,
the monk attains the Peaceful State,
the bliss of cessation of conditioned things.

382. 참으로 어린 그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념하여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밝게 비춘다.

*Yo have daharo bhikkhu yuñjati buddhasāsane
So' maṃ lokaṃ pabhāseti abbhā mutto va candimā.*

That monk who while young devotes himself
to the Teaching of the Buddha illumines this world
like the moon freed from clouds.